

## 텍사스 기쁨의 교회

### 2023 성경일독 & Family Devotions (1 월 January)

	성경일독	E100 신약 첫걸음 50 (성서유니온)
1st	창세기 1-23 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2nd	창세기 24-46 장	성령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3rd	창세기 47 장-출애굽기 19 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4th	출애굽기 20 장-레위기 2 장	주의 길을 예비하라
5th	레위기 3 장-13 장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집 가정 예배는 ( )요일 ( )시에 ( )에서 드립니다.**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365 Youth Devotions for Teens #truth (Josh McDowell)**

- January Theme: The Truth That God Exists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 (1) 규칙적인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예배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다가는 좀처럼 시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예배 시간은 언제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다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아침에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날의 성경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예배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 담당자를 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배 담당자가 반드시 부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혼자서 맡는 것보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아빠가, 둘째 주는 엄마가, 셋째 주는 첫째가, 넷째 주는 둘째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일정한 규칙을 정해 주십시오. **예배시작 기도 - 찬송 - 기도 - 말씀읽기 & 나눔 - 기도제목 나눔 & 기도 - 주기도문**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틀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의 신앙 교육과 질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 은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예배 드리는 믿음 명가 행복 명가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For His Kingdom and His Family,

김성호 목사 드림

## 1st Week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요한복음 1:1-14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오늘의 메시지]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역사 너머의 영원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며 교제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20:31).

예수님은 어둔 세상을 비추는 참 빛과 생명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서는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영접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듯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빛)를 통해 어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 [은혜 나누기]

###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3-5 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속임과 착취로 더 큰 어둠을 생산하여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니 빛에 복종하지 않는 이 어둔 세상의 대안과 청사진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법과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를 생명으로 모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루하루 채워 나갑시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 13 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을 영접하고 '계속' 믿는 길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 어둠을 인정하고 내 무능을 시인하고 내 왕국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백성의 특권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의지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까? 주의 자녀라는 특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나눈 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2<sup>nd</sup> Week

### 성령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누가복음 1:26-38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오늘의 메시지]

세레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찾아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건에 참여할 만큼 마리아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처녀가 아이를 배야 하는 '가혹한 은혜'였습니다. 파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해명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 아픔이 기다리는 은혜였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그 의미를 잘 설명하셔서 마리아의 마음에 남은 한 줌의 의문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벳의 소망 없는 태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약속)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의 몸에도 능히 생명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고 일깨우십니다.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 [은혜 나누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0-33 절.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하셔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

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씨'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그 왕권이 견고한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쇠락이 되는 세상의 무상한 권력과 나라를 좇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에 이 하루도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7, 38 절. 마리아는 '능하신 말씀'에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주의 여종'이 됩니다. 그 순종이 가져올 결과까지 받아들입니다. 아들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자기 몫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눅 2:35). '능하신 말씀'은 지금 내 삶속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그 능력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나눈 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3rd Week

####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누가복음 2:8-20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오늘의 메시지]

'신의 아들'을 자처하던 로마 황제는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호적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기간 동안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삼하 7 장)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주(主)가 난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멸시하던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렸고, 아기 예수님은 이 목자들에게서 맨 처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구주 탄생 소식을 처음 받고 전한 사람은 통치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구주' 가이사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의 칼 아래에서 숨죽인 평화지만,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권력자들을 낮추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역사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월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꾸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우리가 충성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 [은혜 나누기]

###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7-9 절. 하나님 나라의 왕은 힘의 중심인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변방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동경하는 힘과 자원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차별과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목자들처럼 이 땅에서는 천시 받던 이들을 찾아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의 통치'를 구현하십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20 절 목자들은 두려웠지만, 지체 없이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아이의 부모에게 천사에게서 들은 바를 전해줍니다. 비록 멸시받는 일을 했지만, '단순한 순종'을 통해 맨 먼저 온 세상의 주님을 뵈고, 경배하고, 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조건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나눈 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4<sup>th</sup> Week

### 주의 길을 예비하라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누가복음 3:1-14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오늘의 메시지]

태에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예정된(1:76)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1:80)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삶이 변하고 가치관과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회개이며, 그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은 채, 세례와 같은 익숙한 종교행위와 선민의식에 기대는 교만한 위선자들은 그분의 엄준한 질책과 경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은혜 나누기]

#####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 2 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나 권력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의 사람'을 통해 불의와 탐욕에 눈먼 세상을 깨우려 하신 것입니다. 분주함과 요란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에 사무치며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나만의 '빈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시다.

3-6 절.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기나긴 침묵의 시대를 깨고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죄의 포로로 있는 이들에게 참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소식'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비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며,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14 절.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세례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 즉 옛 삶의 종식과 새 삶의 시작입니다. 움켜쥐고 '나'만 알던 삶을 떠나 나누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탐욕과 탐닉을 버리고 자족과 자비를 배우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와 강탈을 멈추고 정의와 정직을 세우는 거룩한 결단과 실천입니다.

###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나눈 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5<sup>th</sup> Week

###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마태복음 4:1-11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에덴의 첫 아담은 풍요 속에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물과 떡의 시험을 받아 실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참 생명이 떡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 달린 줄 믿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거부하셨습니다.

또 말씀(시 91:11, 12)을 인용하며 시험하는 궤계에 맞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대상임을 선언하며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자기에겐 경배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솔깃한 제안에도, 예수님은 그 대가가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십니다. 마귀가 제안한 천사의 도움(6 절)과 떡(3 절)을 거절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이 아들을 수종 들게 하십니다.

#### [은혜 나누기]

#####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전체. 마귀의 시험은 모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뢰와 순종의 실패로

사망 아래 갇힌 이들을 구하러 오셨기에, 그분께 지금 중요한 것은 명분이나 실리가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명분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말고,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됩시다.

3, 4 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아담이나 떡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참 생명은 떡이 아닌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고 고백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깁니까?

8-11 절. 자기를 숭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는 마귀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아들로써 '하나님 경외' 없는 권세나 '하나님 경배'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 탐욕만 부추기고 '자아'를 극대화하는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나눈 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